

GIST 송영민 교수, 해림 광자공학상 수상

- 시각구조 생체모사를 통해 포토닉 구조 연구에 필요한 마이크로 광학계 및 관련 이미징 소자를 독창적으로 구현하는 등 광자공학 분야 발전에 기여



▲ GIST 송영민 교수가 한국광학회에서 광학분야 우수 연구자에서 수여하는 2024년도 '해림(海林) 광자공학상'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GIST 송영민 교수, 한국광학회 한상국 회장(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송영민 교수가 한국광학회가 광학 분야 우수 연구자에서 수여하는 **2024년도 '해림(海林) 광자공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광학회가 지난 2월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송영민 교수가 '2024년도 해림(海林) 광자공학상'을 받았다.

2016년 GIST에 부임한 송영민 교수는 **광자 구조 연구에 필요한 마이크로 광학계 및 이미징 소자를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의 시각구조를 모사하여 기존 카메라가 갖지 못하는 특수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2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차세대 회원에 선출되기도 한 송 교수는 최근에는 '농계의 겹눈 구조를 모사한 전방위 수륙양용 카메라', '갑오징어 눈을 모사한 고대비/고해상도 카메라' 등을 개발하였으며, '초광각 곤충 눈 카메라'는 **2013년 대한민국이 가장 주목한 '10대 과학기술 뉴스'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글로벌 학술정보분석기업인 엘스비어(Elsevier)가 1960년부터 2022년까지의 논문 피인용도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송영민 교수는 '인에이블링 및 전략 기술(Enabling & Strategic Technologies)' 중 '광전자공학(Optoelectronics & Photonics)' 분야에서 **세계 상위 0.93%(자기 인용 제외)에** 오른 바 있다.

해림 광자공학상은 광섬유 제조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GIST 제1호 교수인 고(故) 백운출 교수(1934~2011)가 한국광학회 발전을 위해 기부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상으로, 백 교수의 호(號)인 '해림'을 빌려 이름 지어졌다.

한편 한국광학회는 최근 5년간 광자공학 분야에서 창의적인 우수 논문을 한국광학회지((Journal of Optical Society of Korea)를 비롯, 국내외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